

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-전국노인위원회 간담회 개최

더불어민주당 전국노인위원회(위원장 김손)는 27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국회 본청 비상대책위원장실에서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 이 날 행사는 박지현 위원장이 전국노인위원회에 요청하여 마련된 자리였고, 김손 전국노인위원장을 비롯하여 16명의 부위원장이 참석하였다. 간담회에서는 전국노인위원회의 주요 활동사항을 보고하고, 노인 관련 현안에 대해 비대위원장과 노인위원회 부위원장 간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.

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“당의 뿌리이신 전국노인위원회 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” 며 “대통령선거에서 패했지만, 이재명 대선후보가 당시 내세운 노인 관련 복지정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” 이라고 강조했다. 김손 전국노인위원장도 “전국노인위원회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리며, 앞으로도 당내 노인 당원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문화를 잘 만들어 줄 것” 을 당부하였다.

전국노인위원회는 주요 활동보고에서 ▲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노인 당원 조직역량 강화 ▲노인 관련 정책공약 홍보에 힘쓰고 있다고 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▲당내 노인 당원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 마련 ▲당 차원에서 노인 정책발굴을 위한 노력 지속 등이 논의되었다.

한편, 김손 위원장은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위원회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당 차원에서 노인위원회와 노인 현안에 대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강조하였다.